동아시아 삼국 불교의례 율조 분석



한 · 중 불교의례와 범패
한 · 일 불교의례와 쇼묘
윤소희 지음 / 민속원 / 5만5000원 · 5만8000원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사찰에서 재(齋)를 올릴 때 사용하는 불교음악 범패(梵唄). 인도에서 건너왔다는 뜻으로 인도 소리나 범음(梵音)이라고 칭하기도 하지만 한국불교에서는 '어산(魚山)'이라는 표현으로 자리 잡았다. 어산은 중국 삼국시대 조조의 아들 조식(192~232)에 의해 이름이 붙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가 지금의 산둥성에 있는 어산에서 놀다가 하늘의 소리를 듣고 게송에 곡을 붙인 것이 범패의 시원이기 때문이다.

범패는 국가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영산재를 비롯해 수륙재, 생전예수재 등 다양한 재에서 쓰인다. 소리로는 요령을 흔들며 법주가 축원을 낭송하는 안채비와 홋소리, 짓소리 등이 나뉘고, 무용에 해당하는 작법은 고깔을 쓰고 모란꽃을 쥔 나비춤과 양손에 큰 바라를 들고 추는 바라춤 등이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같은 동아시아문화권인 중국과 일본의 범패는 우리와 어떻게 다를까. 2022년 불교출판문화상, 올해의 불서 대상으로 선정된 〈세계 불교음악 순례〉의 저자 윤소희 교수는 이번에 펴낸 두 책에서 각국의 불교의례 율조를 분석해 한국전통음악의 뿌리와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찾는 시도에 나섰다.

먼저 〈한 · 중 불교의례와 범패〉 1부에서는 석가모니의 음성에서 비롯된 범음, 중국 글자로 음사한 범자와 한문으로 의역된 범패 가사에 초점을 맞춰 재분류했다. 각 악곡의 율조들을 세세하게 분석한 수백 개의 예보들을 제시한 뒤 그 세포조직과 몸체를 이루는 뼈대를 도표로 나타냈다. 이로써 한 음에서 시작돼 장대한 범패 악곡이 되는 과정을 누구나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배려했다.

제2부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관계를 조명했다. 장보고가 이끌던 산동적산원 신라인의 불교의례와 음악, 대만의 범패와 한국 범패의 비교, 나아가 현재의 한글 반야심경과 조석예불문에 이르기까지 제반의 내용을 현지조사 자료에 기반을 두고 고찰했다. 이는 불교음악을 넘어 한국문화의 체질과 정체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한 · 일 불교의례와 쇼묘〉에서 '쇼묘(聲明)'는 범패와 달리 한국인에게는 많이 낯선 용어다. 중국과 한국이 불교의례 율조를 범패라고 칭하는 것과 다르게 일본에선 쇼묘라고 표현한다. 당나라 청익승들의 귀국 이후 일본의 불교의례가 밀교적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소리·무용 등 종합예술로
재(齋)에 쓰이는 불교음악
中 범패 · 日 쇼묘로 표현
한국불교 의례 차이 조명


지난 2021년 6월 신촌 봉원사에서 봉행된 코로나19 종식 기원 영산재에서 스님들이 범패의 한 요소인 바라춤을 선보이고 있다.

제1부에서는 백제불교를 기반으로 한 일본불교의 시작과 전개 과정, 나아가 한국과 다른 일본불교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조선조 500년 동안 중국의 제사음악에 힘을 쏟은 한국과 달리 일본에는 유교제례음악이 존재하지 않았고, 불교음악이 궁중아악이었다.

저자는 한국에서 파계승을 놀리며 춤추는 산대극이 본래는 백제의 미마지가 일본에 전해준 사찰교훈극이었음을 나라의 고후쿠지 〈교훈초〉를 통해 알게 됐다. 책은 도다이지를 비롯한 나라의 여러 고찰, 오사카의 시텐노지 등 사찰 곳곳의 의례와 신행이 한국불교의 옛 모습임을 알려준다.

"우리네 본래 모습을 중국을 통해 알게 된 것이 40%라면 일본은 60%"라는 게 저자의 설명. 당대의 교파불교 전통을 유지한 일본은 각 종파마다 의례와 신행, 쇼묘 법도가 다르고 오음 · 당음 · 한음 등 관습에 따라 발음도 다르다. 그렇기에 이 책은 한글과 한자, 일본음을 3중으로 표기해가며 서술하고 있다.

제2부에서는 일본불교 쇼묘의 원류를 짚는다. 그간 학계에서는 엔닌 스님이 당나라에서 범패를 배워와 쇼묘가 시작된 것으로 기록해왔다. 저자는 그것이 산동적산원 신라인의 불교의식과 범패를 근간으로 하고 있음을 구체적 사료를 통해 제시한다. 반대로 일제강점기 일본의 불교의례와 신행이 한국불교에 영향을 미친 역전입 현상도 설명한다. 그간 일본불교 연구 논문과 서적은 많았지만 실질적인 신행과 의례, 쇼묘를 연구한 자료가 전무한 상황에서 이 책은 일본의 불교문화를 알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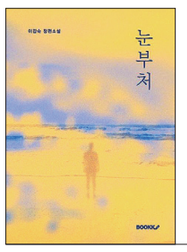
▲저자 윤소희는?

부산대 한국음악학과서 작곡을 전공하고, 한양대 음악대학서 음악인류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위덕대 연구교수를 지냈으며, 현재는 동국대 대우교수로서 한국전통음악을 강의하면서 한국불교음악학회 학술위원장을 맡고 있다. 대원상 특별상, 반야학술상 저술상, 묘엄불교문화상 등을 수상했다. 한국은 물론이고 아시아 전역을 다니며 현지조사를 통한 연구로 다양한 학문적 성과를 내보이고 있으며, 이외에 작곡과 음반 발매 등 폭넓게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문화와 음악〉 〈문명과 음악〉 〈범패의 역사와 지역별 특징〉 〈동아시아 불교의식과 음악〉 〈한 · 중 불교음악 연구〉 〈영남범패 대담집(공저)〉 등이, 논문으로 〈대만 불교 의식음악 연구〉 〈티벳 참무를 통해 본 처용무와 영산재〉 〈팔리어 송경율조에 관한 연구〉 〈불교음악 연구의 좌표와 지평〉 〈천수다라니 범문원리와 한 · 중 · 일 율조비교〉 외 다수가 있다.

새로 나온 책

만남 · 사랑 알아가는 구도 여정



눈부처
이갑숙 지음
부크크 / 1만6300원

제2회 법계문학상 수상자인 이갑숙 작가(법명 덕산)가 후속작 〈눈부처〉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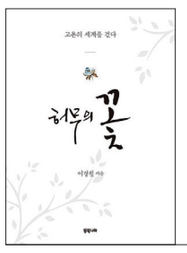
〈눈부처〉는 작가의 전작인 〈꺼지기 쉬운 빛〉의 후속 장편 소설이다. 작중 화자인 지서가 사후 세계를 다루는 〈티베트 사자의 서〉의 안내로 죽음 여행을 하면서 '꺼지기 쉬운 빛'을 찾아 나서는 여정을 그렸다.

소설은 크게 두 축으로 나뉜다. 하나는 인정 욕구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삶의 길목에서 다가온 어떤 알아차림, 그 자성의 빛에 관한 어느 한 늙은이의 자전적 서사다. 다른 하나는 어린왕자와 선재동자에게 길을 물어가며 지서를 둘러싼 기막힌 시절 인연의 진정한 만남과 사랑의 의미를 찾아 나서는 작중 화자의 구도적 여정이다. 죽음 여행의 끝에 이르러 지서는 어린왕자의 '길들임'과 선재동자의 '보현행'이 세상을 들꽃처럼 아름답고 향기 그윽하게 만드는 진정한 만남과 사랑임을 알아차린다.

이갑숙 작가는 행정고시 합격 후 30여 년간 공직생활을 했다. 울산지방해운항만청장, 한국해양대학교 겸임 · 초빙교수, 부산항만공사 사장 등을 역임했다. 퇴직 후 청계사 '마음 따라 향기 법문 선원 순례단' 단원으로서 8여 년 동안 국내외 108군데 선원과 사찰을 찾아다녔다. 2017년 법계 문학상 공모에 장편소설 '꺼지기 쉬운 빛'이 당선됐다.

임은호 기자

고은의 세계를 걷다



허무의 꽃
이경철 / 동쪽나라 / 1만8000원

이경철 문학평론가가 고은 시인의 시와 삶과 시대를 둘러본 〈허무의 꽃-고은의 세계를 걷다〉를 펴냈다. 고은 시인의 구순을 맞아 펴낸 이번 책은 고은 시인의 시를 삶과 시대와 아울러 전체적으로 조감하고 있다.

책은 '시대와 영원을 동시에 껴안는 철부지 시인' '민족시인에서 세계시인으로서의 벅찬 삶과 시' '벅찬 감동으로 삼천대천세계를 감응시키는 시' 등 5개 주제 60여 편으로 구성됐다.

일간지 문학 담당기자와 문예지 편집자 등으로 고은 시인과 30여 년간 만나온 저자는 이런 친교와 실감을 바탕으로 시를 고르고 감성하고 해석했다. 이를 통해 고은 시인의 시가 독자들에게 감동의 실감으로 다가가게 한다.

이경철 문학평론가는 2010년 〈시와 시학〉에서 시인으로 등단했다. 저서로 〈21세기 시조 창작과 비평의 현장〉 〈현대시에 나타난 불교〉 등이 있으며, 시집 〈그리움 베리에이션〉 등을 펴냈다. 현대불교문학상, 질마재문학상, 동국문학상, 유심작품상 등을 수상했다.

임은호 기자

스님이 바로 읽어주는 금강경



진옥 스님 설법집 금강경
진옥 지음
석천사 / 비매품

불교사상의 진수이자 대승의 공사상이 오롯이 담겨 있는 〈금강경〉. 불자들이 가장 많이 수지독송하고 관련 해설서 또한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정작 그 뜻에 가닿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한문식 문구가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걸림돌이라면 용어에 대한 잘못된 번역과 해설이 만연해있는 것도 사실이다.

BBS불교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무명을 밝히고'에서 '불교로 세상보기' 코너를 이어오고 있는 여수 석천사 주지 진옥 스님이 잘못된 번역과 해설을 바로잡아 〈설법집 금강경〉을 책으로 펴냈다. 〈설법집 금강경〉에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무명을 밝히고'에서 진행한 강의 내용이 가감 없이 정리됐다. 정준영 아나운서가 질문을 하고 윤금선 작가가 내용을 정리하는 한편 장기상 물리학 박사가 주석을 도와 이해하기 쉽게 구성한 점이 눈길을 끈다.

현재 동국대 와이즈캠퍼스 티베트대장경역경원장이기도 한 진옥 스님은 불자들에게 금강경의 본뜻을 이해시키고자 여수 석천사와 서울 마하연 공부방에서 금강경 강의를 계속해왔다. 1975년 출가, 1999년 달라이라마에게서 보살계와 금강승계를 받고 정진 중이다.

진옥 스님은 〈설법집 금강경〉을 비매품으로 제작, 1차로 1만 권을 인쇄해 전남지역 불자들과 시 · 청취자들에게 무료 배포했다. 여수 석천사로 문의하면 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061)662-1607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현대불교신문
구 독 안 내
전화 한번에 끝!
자동이체로 전환하세요
02-2004-8212

불교의 현대화 1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2 생활 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 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3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불자정보
(사찰, 포교당 양도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akao Ch 카카오톡 채널에서 현대불교신문을 검색하세요!
NAVER 현대불교신문